

18·19세기 漢陽都城 안 宮廟의 입지와 위상

The Location and Topology of the 'Gungmyo' in Hanyang Doseong during the 18th and 19th Century

송 인 호

Song, In-Ho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조 은 주*

Cho, Eun-Joo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건축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the location and topology of the 'Gungmyo(宮廟)' and in Hanyang Doseong(漢陽都城) during 18th and 19th century. Based on the changes of royal processions(行幸) which had been done between the Gungmyo and the Palace, the Gungmyo can be a barometer of cognition where the city center was.

Hanyang Doseong was the the capital of Joseon(朝鮮) which had established by king Taejo(太祖). The city had been organized with Gyeongbok-gung(景福宮) as the center. However, after the Imjin War(1592), Gyeongbok-gung was destroyed and urban space was reorganized with Changduk-gung(昌德宮) which reconstructed first. As most kings in late Joseon dynasty had mainly stayed in Changduk-gung, lots of Gungmyos where a memorial service for king's relatives had been held were established in and around the palace and the frequency of visiting the Gungmyo varied by political purpose. Therefore, the location of the Gungmyo and the route of parade were important to impress on the center of urban space.

In 18th century, lots of King's procession had been done with Changduk-gung as departure point. The king used to start from Donwha-mun(敦化門), and the routes included main street around Changduk-gung. It shows that the urban center focused on the east of the city. On the other hand, when the king lived in Kyeonghee-gung(慶熙宮), a secondary palace in late Joseon dynasty, the parade started from Hungwha-mun(興化門) and the urban center was expended to the west.

Since Gyeongbok-gung had reconstructed in 1865, recognition scheme of urban space had changed from Changduk-gung to Gyeongbok-gung as the center. When the Gungmyo relocated western side of Gyeongbok-gung, spatial proximity of the palace and relation with facilities around downtown fed into changing the route of king's parade.

주제어 : 한양 도성(都城), 궁묘(宮廟), 행행(行幸), 도시공간

Keywords: Hanyang Doseong(Seoul City Wall), Gungmyo, Royal Procession(King's parade), Urban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Corresponding Author : dreaming-blue@hanmail.net

이 연구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413-A00002)

태조 이성계의 조선 개창 이후 새로운 국가의 수도로 건설된 한양(漢陽)¹⁾ 도성의 도시 공간 체계는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의 발발로 도성 내 주요 시설물들이 대부분 파괴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복궁(景福宮)과 창덕궁(昌德宮)이 모두 소실된 상황 속에서 창덕궁의 중건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경복궁을 중심

1) 행정구역상의 정식 명칭은 한성부(漢城府)

8 논문

으로 형성되어 있던 조선 초기의 도심 공간 역시 새롭게 정궁(正宮)으로 발돋움한 창덕궁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궁터만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경복궁의 상징성, 그리고 창덕궁·창경궁(昌慶宮), 종묘(宗廟)·사직(社稷) 및 주요 간선도로가 만들어 내는 한양의 도시 공간 체계의 큰 틀이 전란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때의 변화가 물리적 변화보다는 도성에 살고 있던 지배층 및 피지배계층의 공간 인식 체계 변화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궁궐 및 간선도로간의 위상 변화가 당시의 도성민들이 인식하고 있던 도심 및 변화가 어디였는가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선말 고종의 즉위 이후 이루어진 경복궁 중건 사업은 창덕궁 중심의 도심부 인식 체계가 다시 경복궁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온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18세기 이후 도성 안에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궁묘(宮廟)²⁾ 시설은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조물 가운데 종묘·사직과 더불어 왕의 행행(行幸)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대상이었으며, 동시에 왕이 어느 궁궐에 임어하고 있는가에 민감하게 반응한 시설이었다. 따라서 궁궐과 궁묘 사이를 오갔던 조선시대 왕의 행행 동선은 당시 도심부에 대한 지배층의 공간 인식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옛 문헌자료와 지도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후기, 특히 영조 재위 이후인 18, 19세기의 한양 도성 안에서 궁묘의 입지 변화를 정리하는 한편으로, 궁궐과 궁묘 사이의 행행 동선의 분석을 통하여 궁묘의 도시위상 변동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조선후기 편찬된 지리지(地理志)에서 궁묘로 구분되는 시설들은 궁궐, 종묘, 사직과 함께 도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궁묘는 종묘에 모시지 못한 사친(私親)의 신위를 모시기 위해 별도로 궁궐 밖에 조성한 시설로서 왕의 의례행위를 동반한 궁궐 밖 행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장소였다. 왕 혹은 왕실과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궁묘시설은 왕대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성쇠가 좌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 도성 안에 존재하고 있던 다양한 궁묘 시설 중 궁호가 붙은 건물들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사친에 대한 추송의 정도에 따라 궁호 또는

2) 궁호(宮號) 또는 묘호(廟號)가 붙은 왕실의 사당을 가리킨다.

Tab.1 Jiriji(地理志) publish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Jifiji(地理志)	compilation year	name of Gungmyo(宮廟)
輿圖備志	1853~1856	景慕宮, 儲慶宮, 毓祥宮, 延祐宮, 景祐宮, 宣禧宮, 壽進宮, 大賓廟
大東地志	1863	景慕宮, 儲慶宮, 毓祥宮, 延祐宮, 景祐宮, 宣禧宮, 壽進宮
東國輿地備考	19th century	儲慶宮, 毓祥宮, 景慕宮, 大嬪宮, 延祐宮, 宣禧宮, 景祐宮, 顯思宮
增補文獻備考	1908	儲慶宮, 毓祥宮, 延祐宮, 宣禧宮, 景祐宮

묘호가 붙어 궁묘가 성립되었다고 할 때, 궁(宮)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궁묘시설은 그렇지 않은 시설에 비해 단지 좀 더 격상된 위치를 획득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왕의 직접적인 의례행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 왕의 일상 공간인 궁궐과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문루와 성벽으로 둘러싸인 한양 도성 안 지역으로 한정되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8세기 영·정조 재위기부터 19세기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 이전까지이다. 경운궁(慶運宮; 德壽宮)이 새로운 황궁으로 지정되어 경복궁과 창덕궁을 위시한 기존의 궁궐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이전, 경복궁과 창덕궁 등 국초에 조성된 궁궐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의 물리적 큰 틀이 근본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궁묘의 입지 및 그것의 도시위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 각종 지리지에 언급된 궁묘 중에서 연구의 대상은 현재의 칠궁(七宮)³⁾에 속하는 육상궁(毓祥宮), 저경궁(儲慶宮), 대빈궁(大嬪宮), 연호궁(延祐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 그리고 경모궁(景慕宮) 등 7개 시설이다.

2. 조선후기 한양의 도시공간과 궁묘의 성립

2-1. 도성 안 주요 시설과 간선도로의 발달

조선의 건국 이후, 새로운 수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묘·사직의 건축과 함께 가장 먼저 조성이 이루어진 경복궁은⁴⁾ 도성 건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종묘와 사

3) 육상궁에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 덕안궁의 신위를 합사하여 칠궁이라 부르게 되었다. 현재 종로구 궁정동 1-1번지(청와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적 제 149호로 등록되어 있다.

4) 태조 4년(1395) 9월에 경복궁과 종묘·사직의 건축을 대체로 완료하고 12월 28일에 경복궁에 입주하였는데 이는 한양으로 천도한지 1년 2개월 만의 일이었다.(서울六百年史; <http://seoul600.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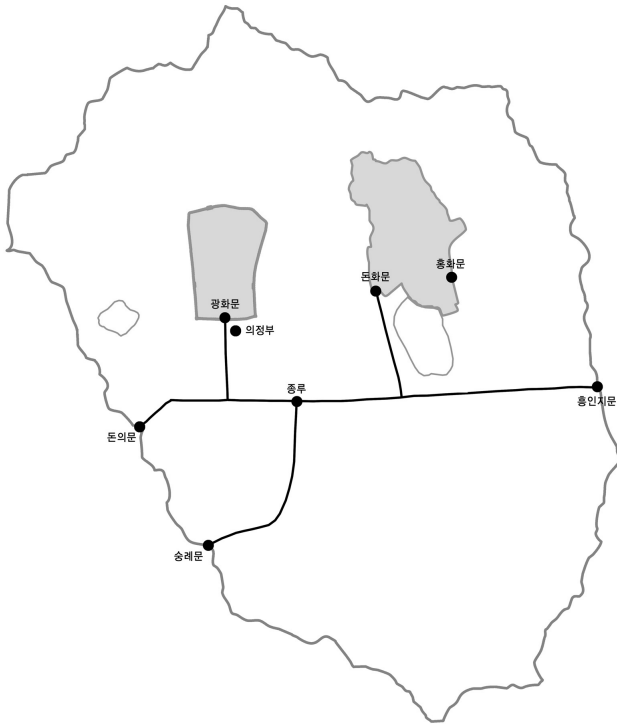


Fig.1 The main street of Hanyang(old Seoul) before the Imjin War
 직을 비롯하여 각종 관청과 시전(市廛) 등 도시의 주요 시설물들이 풍수와 『주례(周禮)』를 바탕으로 한 도성 조성의 원칙에 따라 배치될 때, 그 기준은 경복궁이었다. 따라서 태종 때의 창덕궁 영건을 비롯하여 이후 이루어진 창경궁, 경희궁(慶熙宮)의 영건 모두 경복궁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해 조성된 성격이 강했다. 도성 안 주요 간선도로의 체계는 황토현(黃土峴)에서 흥인지문(興仁之門)을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종로(鐘路)와 종루(鐘樓)에서 숭례문(崇禮門)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남대문로(南大門路)가 만들어내는 丁자형의 기본 골격 위에 경복궁 광화문(光化門)과 창덕궁 돈화문(敦化門) 앞에서 각각 남쪽 방향으로 뻗어나간 도로가 종로에 연결되어 ㅁ형을 만들어내는 형태였다. 도시공간의 위계가 주변 도로의 발달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때, 조선 초의 도심부는 경복궁을 기준으로 의정부 등의 육조(六曹)가 자리 잡고 있었던 도성의 서쪽을 중심 삼아 창덕궁이 위치한 도성의 동쪽으로 확장되어가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궁궐을 비롯하여 도성 안의 주요 시설물들이 대부분 파괴되자 도성의 공간체계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본래의 법궁(法宮) 경복궁을 그대로 두고 창덕궁 중건 공역을 우선적으로 시작하면서 도심공간에 대한 인식은 창덕궁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18세기 도성 안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한 거리 축적으



Fig.2 Doseongdaejido(都城大地圖), 18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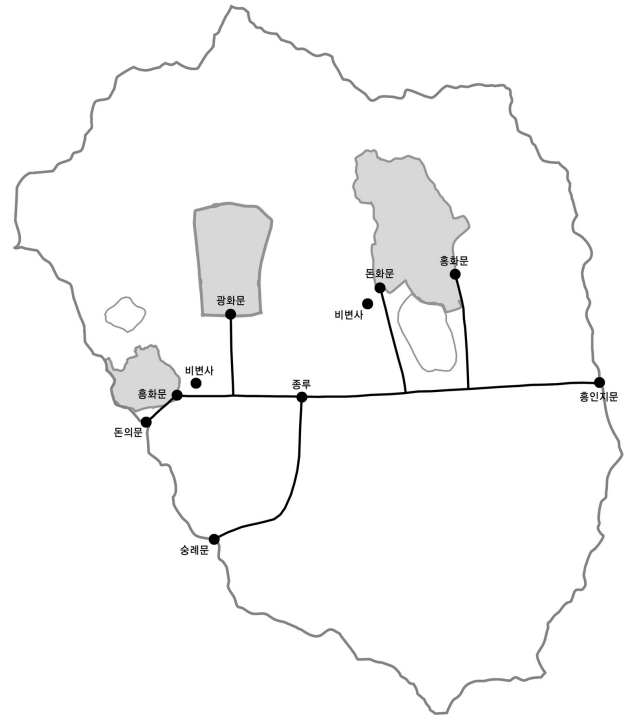


Fig.3 The main street of Hanyang(old Seoul) after the Imjin War(based on 「Doseongdaejido(都城大地圖)」)

로 보여주는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에서 도로의 표현은 굵기를 다르게 한 붉은 색 선을 통해 크게 대로(大路)·중로(中路)·소로(小路)로 구분되어 있다. 이것은 대로 56척, 중로 16척, 소로 11척으로 규정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도로 구분 방식과⁵⁾ 동일한 구별법으로, 도로를 표현하고 있는 선의 굵기 차이를 통해 조선 후기 도성 안 간선도로의 발달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5)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건축사, 1999, 179쪽

「도성대지도」로 살펴본 조선 후기 도성의 대로는 크게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뉜다(Fig.3). 경북궁 광화문에서 종로에 이르는 구간, 돈의문(敦義門)에서 경희궁 흥화문(興化門)을 지나 흥인지문에 이르는 구간(종로), 종루에서 승례문 구간(남대문로), 창덕궁 돈화문에서 종로에 이르는 구간, 그리고 창경궁 흥화문(弘化門)에서 종로에 이르는 구간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창경궁 흥화문에서 종로에 이르는 구간이 대로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912년 지적도를 통해 확인한 이 구간 도로의 폭은 평균 14~15m로서, 미터법으로 환산한 『경국대전』의 도로 폭과 비교할 때 종로의 기준(6.2m)보다는 넓지만 대로(19m)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도로 폭을 가지고 있었다.⁶⁾ 즉 실제로 대로에 해당하는 도로의 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에서는 대로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심으로 한 도심부에 대한 공간인식이 도로체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 초기 행정의 최고 기관이었던 의정부의 기능이 임진왜란 이후 쇠퇴함에 따라 의정부를 대신하여 비변사(備邊司)가 새롭게 국정운영의 최고 기관으로 부상하였는데, 그 위치가 창덕궁 돈화문 앞이었다. 즉 경북궁 앞에 집중되어 정치·행정 공간의 중심이 창덕궁 앞으로 옮겨짐에 따라 나타난 도심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간선도로 체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덕궁을 중심으로 한 도성 동쪽의 도시공간은 조선 후기 내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2-2. 도성 안 궁묘의 성립

한양 도성 안 궁묘의 역할은 오례(五禮) 중 길례(吉禮)에 해당한다. 종묘와 사직에서의 제사를 포함하는 길례는 조선시대 예전(禮典)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의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래 종묘에 들 수 없는 왕의 사친이나 조모, 왕세자, 왕세자손, 왕세손 등 왕족의 제사는 별도의 사당을 짓고 모시다가 대(代)가 다하면 조천(祧遷)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⁷⁾ 궁묘에서의 제사는 조선 초의 사전(事典) 체계에서 누락되어 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영조대 이후 시작된 궁원제(宮園制)로 왕의 사친에 대한 제사도 추송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조선후기 새롭게 재편된 사전체계 속에는

궁묘에서의 의례가 포함되어졌다. 경모궁(景慕宮)에서의 제사가 중사(中祀)에⁸⁾ 새롭게 편입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궁묘에서의 의례는 종묘와 사직에서 이루어지는 대제(大祭)에 비해 간소하게 치러졌지만 그로 인해 왕의 사친추송에의 의지가 강할수록 정례적 의식 이외에도 빈번한 왕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향사의 대상과 국왕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임어하고 있는 궁궐과 인접한 거리에 궁묘를 두는 경향이 강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고종이 즉위할 당시 연구의 대상이 된 각 궁묘의 성립과 도성 안 입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Fig.4).



Fig.4 Location of Gungmyo in Lat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map in 1912(①大嬪宮, ②毓祥宮, ③儲慶宮, ④景慕宮, ⑤延祐宮, ⑥宣喜宮, ⑦景祐宮)

(1) 대빈궁(大嬪宮)

숙종(肅宗)의 후궁이자 경종(景宗)의 생모인 희빈 장씨(禧嬪張氏)의 사당이다. 경종 2년(1722) 장씨(張氏)를 추존(追尊)하여 옥산 부대빈(玉山府大嬪)으로 삼아 사우의 조성을 명하였고,⁹⁾ 경종 3년(1823) 6월에 완성된 대빈궁에서 전배(展拜)를 행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당시 궁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중부 경행방(中部 慶

6) 송인호, 조은주, 조선별궁 어의궁의 도시적 위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권 5호, 2011, 150쪽

7) 정경희, 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 24, 2004, 158쪽

8)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국가의례를 정리한 예전(禮典)들에서 길례는 제사의 규모에 따라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9) 景宗 10卷, 2年(1722) 10月 10日(壬戌) 1번째 기사

幸坊), 현 종로구 낙원동 5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2) 육상궁(毓祥宮)

숙종의 후궁이자 영조(英祖)의 생모인 숙빈 최씨(淑嬪崔氏)의 사당이다. 원래 창의궁(彰義宮)에 사우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무산되면서, 영조 원년(1724) 청릉군(靑陵君) 이모(李模)의 집을 매입하여 영조 1년(1725) 완성하였다.¹¹⁾ 영조 20년(1744) 묘호를 ‘육상(毓祥)’으로 하고,¹²⁾ 영조 29년(1753) 시책을 올려 묘(廟)를 궁(宮)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육상궁(毓祥宮)’이 되었다.¹³⁾ 경복궁의 서북쪽, 북부 순화방(北部 順化坊), 현 종로구 궁정동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3) 저경궁(儲慶宮)

선조(宣祖)의 후궁이자 원종(元宗)의 생모인 인빈 김씨(仁嬪金氏)의 사당으로 인조(仁祖)의 잠저인 송현궁(松峴宮) 터에 조성되었다. 영조 31년(1755) 인빈의 사우를 송현궁에 봉안하고, ‘저경(儲慶)’이라는 궁호를 올리면서 저경궁으로 개칭되었다.¹⁴⁾ 남부 회현방(南部 會賢坊), 현 중구 남대문로 3가 1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4) 경모궁(景慕宮)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思悼世子; 추존 장조(莊祖))와 그의 비 헌경왕후(獻敬王后)의 사당이다. 본래 북부 순화방, 현 종로구 창성동에 세웠던 것을 영조 40년(1764) 동부 숭교방(東部 崇教坊) 함춘원(含春苑),¹⁵⁾ 현 종로구 연건동의 서울대학교병원 자리에 옮겨 수은묘(垂恩廟)라 하였다. 이후 사도세자의 추존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조 즉위년(1776) 도감을 설치하고 공역을 시작하여 그해 8월에 완공, 경모궁이 되었다.

(5) 연호궁(延祐宮)

영조의 후궁이며 효장세자(추존 진종(眞宗))의 생모인 정빈 이씨(靖嬪李氏)의 신위를 봉안한 사당이다. 정확한 조성 시기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영조 1년(1726) 정빈에 추증되어 정조 2년(1778) 시호가 내려진 것으로 볼 때, 정조 즉위를 전후하여 궁묘가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10) 『承政院日記』 경종 3년 6월 8일 (을묘)

11) 英祖 8卷, 1年(1725) 12月 23日(丙戌) 2번째기사

12) 英祖 59卷, 20年(1744) 3月 7日(乙酉) 4번째기사

13) 英祖 79卷, 29年(1753) 6月 25日(己酉) 4번째기사

14) 英祖 85卷, 31年(1755) 6月 2日(甲辰) 3번째기사

15) 창경궁 홍화문 밖 동쪽에 있던 정원. 성종 때(1470~1494)에 조성되어 임진왜란으로 파괴되기 전까지는 왕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으며, 이 원유를 가꾸기 위하여 주변의 민가·가묘 등을 거의 다 철거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인조 때(1623~1649)에 와서는 그 절반을 떼어서 말을 놓아기르는 곳으로 사용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다. 북부 순화방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옛 지도와 문헌 자료의 기록으로 추정할 때 육상궁의 동측, 경복궁의 후원 영역에 위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6) 선희궁(宣禧宮)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暎嬪李氏)를 모신 사당이다.¹⁶⁾ 영조 41년(1765) 영빈에게 ‘의열(義烈)’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사당은 의열궁(義烈宮)이라 하였다가 정조 12년(1788) 선희궁(宣禧宮)으로 개칭하였다. 북부 순화방, 현 종로구 신교동 1-1번지에 조성되었다.

(7) 경우궁(景祐宮)

순조의 생모 수빈박씨(綏嬪朴氏)¹⁷⁾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순조 24년(1824) 1월 건립을 결정하여 같은 해 6월 8일 완성되었고,¹⁸⁾ 혼궁(魂宮) 때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현사궁 별묘(顯思宮別廟)라고 했다가 다시 같은 해 12월 1일 전교를 내려 경우궁으로 개칭하였다.¹⁹⁾ 북부 양덕방(北部 陽德坊) 현 종로구 계동 14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경우궁이 건립되기 이전에 용호영(龍虎營)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다.

3. 도성 안 궁묘의 입지와 행행(行幸)의 의의

3-1. 국왕 임어지와 궁묘 행행의 관계

의례적 공간으로서 궁묘는 국왕의 궁궐 밖 거동(舉動), 즉 행행(行幸)을 반드시 수반하고 있었다. 행행의 기점이 되는 왕이 임어하는 궁궐과의 관계가 궁묘의 입지 및 행행 경로의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궁묘는 도시의 구성 요소 중에서도 궁궐체계의 변화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시설물 중의 하나였다. 이에 따라 궁묘로의 행행경로를 구성하는 주요 지점(spot)과 도로들은 지배층(왕)이 피지배층(민인)에게 위엄을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performance)의 장으로서의 그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변화한 시가지이거나 왕의 행렬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로의 폭)을 확보한 곳이 된다.

먼저 도성 안에서 이루어진 왕의 행행은 단순히 궁궐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16) 영조의 두 번째 후궁으로, 영조 6년(1730) 귀인에서 영빈으로 봉해졌다. 영조11년(1735)년 원자(사도세자)를 낳았으며, 영조 40년(1764) 사망하였다.

17) 정조 11년(1787) 후궁으로 간택되어 빈으로 봉해졌다. 순조 22년(1822) 12월 26일 창덕궁 보경당(寶慶堂)에서 53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으며, 창경궁 환경전(歡慶殿)에 빈궁(嬪宮)을, 도총부(都摠府)에 혼궁(魂宮)을 세워 장례를 치렀다.

18) 純祖 27卷, 24年(1824) 6月 8日(庚子) 2번째기사

19) 純祖 27卷, 24年(1824) 12月 1日(己未) 3번째기사

12 논문

있어서,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위엄을 피지배층에게 보여주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행을 통해 행위의 주체인 왕과 행렬을 수행하는 관원들, 그리고 그 모습을 관광(觀光)하는 일반 백성들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정치적 공간이 도시 속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행행 경로의 결정에는 이러한 지배층의 정치적 행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졌다. 더욱이 사직, 종묘, 문묘로의 행행과 달리 각 궁묘로의 행행은 향사의 대상이 되는 사친과 왕의 관계에 따라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치러지는 도성 내 행행과는 또 다른 도시적 의미를 지닌다. 왕대별로 행행이 이루어지는 궁묘 시설과 거동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러한 궁묘 행행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며, 이는 당시 도성 내 변화가와 국왕의 관심지역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도성 안 궁묘로의 행행의 형태는 대부분 당일 환궁이 가능한 경거동(京舉動)으로 분류되는데,²⁰⁾ 도성 밖으로 나가는 원거리 행행과 비교할 때 행렬의 규모가 작았던 것은 당연했다. 또한 궁묘 행행은 행렬의 화려함을 민인에게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언제든지 궁묘로 나아가 사친에 대한 예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동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통의 도성 내 행행보다 행렬의 규모와 수행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여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영조와 정조가 재위기간 동안 육상궁과 경모궁에 그토록 빈번하게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은 예법의 간소화를 통한 행렬 규모의 최소화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궁묘 행행의 경로가 행렬 수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도로 폭)을 확보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입묘봉안제(入廟奉安祭)나 계절별 대제(大祭)와 같이 격식을 갖춘 제사를 치를 경우 달라지는 행행의 규모 때문이다. 이 경우 종묘나 사직의 거동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왕의 도성 내 행행 예법을 따르게 되며, 적어도 400~500명 이상의 인원이 소요되었다.²¹⁾ 행렬이 지나가기 위해 최소한 중로 이상의 도로 폭이 필요했으므로 왕의 행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로에 포함되어진 도로가 중로 이상의 폭을 확보하고 있었

거나 혹은 그 수준으로 정비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도성 내 행행을 준비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도로 정비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²⁾ 이에 따라 영조 재위기를 기점으로 궁묘의 건립과 행행의 증가는 초기 한양의 간선도로 체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왕의 행행 동선을 도로의 정비를 통해 확대시켰고, 행행을 통해 확인되는 도성 안 새로운 도로의 발달은 국왕의 임어지인 궁궐과의 관계 속에서 조선 후기 창덕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도시공간이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3-2. 창덕궁 중심의 궁묘 행행과 경희궁 이어

전술했듯이, 영·정조 재위기인 18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궁묘시설은 종묘에 모시지 못하는 사친에 대한 존숭 작업을 통해 유교적 질서의 근간인 효(孝)의 모범을 실천하는 한편으로 왕통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종묘·사직에 대한 제사와 함께 도성 안 행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Tab.2 Years of the royal presence in late Joseon dynasty

King	Changduk-gung		Changkyeong-gung		Kyeonghee-gung (Kyeongduk-gung)	
	Years of the royal presence	Years of the royal presence/ the period of reign	Years of the royal presence	Years of the royal presence/ the period of reign	Years of the royal presence	Years of the royal presence/ the period of reign
Hyojong (孝宗)	8.66	0.87	-	0	1.17	0.12
Hyeonjong (顯宗)	11.16	0.74	-	0	3.42	0.23
Sukjong (肅宗)	21.33	0.46	7	0.15	12.6	0.27
Keongjong (景宗)	1.25	0.31	2.58	0.65	0.33	0.08
Yongjo (英祖)	26.58	0.51	7.75	0.15	18.83	0.36
Jeongjo (正祖)	12.08	0.50	11.42	0.48	1.42	0.06
Sunjo (純祖)	24.59	0.72	8.58	0.25	4.5	0.13
Heonjong (憲宗)	13.58	0.91	-	0	1	0.07
Chunjong (哲宗)	14	1.00	-	0	0.58	0.04
total	133.23	0.62	37.33	0.17	43.85	0.20

(reference: Hong, Sunmin, The management of royal palaces and the changes of "the dual palace managing system" in Joseon dynasty, 1996)

20) 행차의 종류와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행행의 형태는 당일 환궁의 여부에 따라 경거동(京舉動)과 원거리 행행으로 구별되었다. (이왕무, 1802년 순조의 가례에 나타난 국왕의 행행 연구, 장서각14, 2005, 179~180쪽)

21) 김지영, 조선 후기 국왕 행차와 거동길, 서울학연구 30, 2008, 44~45쪽

22) 조선 후기 왕의 행행은 택일(擇日), 병조에서 궁궐부터 행행지 사이 거리와 당일 환궁 여부를 알리는 군령(軍令), 시위군(侍衛軍)·유도군(留都軍) 선정과 동원, 도로 정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왕무, 조선 후기 국왕의 도성내 행행의 추세와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vol.43, 2007, 101~102쪽)

있던 이러한 각 궁묘로의 거동은 피지배층인 일반 민인들에게 왕이 행차하는 장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지시킴으로써 그것이 도시 공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과 상징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

고종 2년(1865) 경복궁 중건 공역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조선후기 왕의 주된 임어(臨御) 궁궐은 대부분 창덕궁에 집중되어 있었다. 창경궁의 경우 창덕궁과 경계가 맞닿아 있으면서 수시로 왕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창덕궁과 함께 하나의 궁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실상 창덕궁의 임어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해도 무관할 것이다. 또 다른 이궁인 경희궁의 경우, 임어기간이 대부분 5년 미만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종, 숙종, 영조를 제외하면 전체 재위기간을 기준으로 10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 정도의 활용을 보인다<Tab.2>. 따라서 조선후기 궁묘의 입지 결정은 대부분 창덕궁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행행동선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조연간에 건립된 경모궁과 순조연간에 건립된 경우궁이다.

정조 즉위 이후 생부인 사도세자에 대한 추숭이 이루어짐에 따라, 궁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모궁은 처음 사우가 조성되었던 북부 순화방에서 동부 송교방으로 옮겨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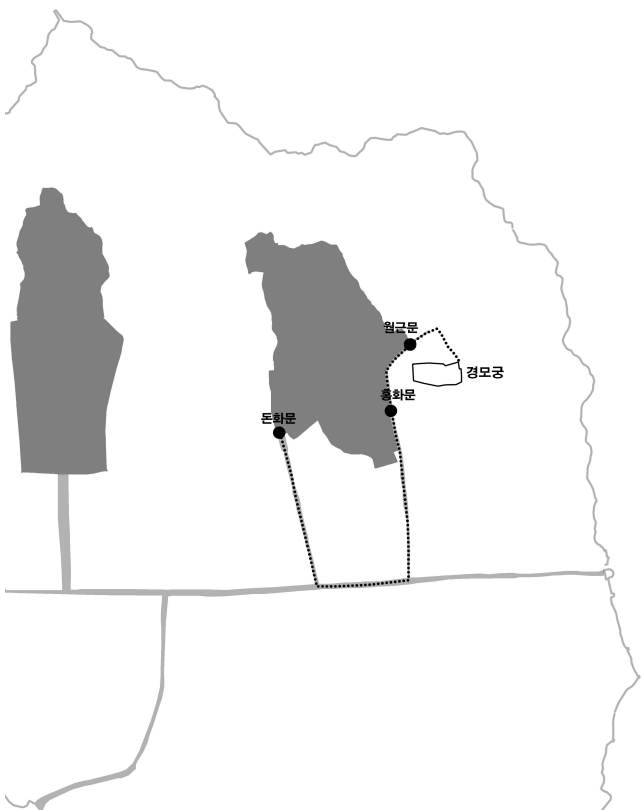


Fig.5 Flow of king Jeongjo's parade from Changduk-gung to Kyeongmo-gung

Tab.3 The number of king's parade inside of the city wall

	Youngjo	Jeongjo	Sunjo	Heonjong	Chuljong
the period of reign. (Year)	52	24	34	15	14
宗廟	127	65	76	38	36
社稷	25	22	6	2	2
大嬪宮	-	-	-	-	-
毓祥宮	247	37	23	12	9
儲慶宮	20	5	21	11	9
景慕宮	-	285	83	20	24
延祐宮	-	22	23	9	8
宣喜宮	-	23	23	10	8
景祐宮	-	-	27	12	8

(reference : Kim, Jiyoung, (A) Study on the parades of the King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2005/Kim, Jiyoung, A study on the State rituals and King's tourings in Joseon during the 19th century, 韓國文化54, 2011,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다. <Tab.2>에 나타난 왕대별 궁궐 이용방식에서 확인되듯이, 정조는 조선후기 왕들 중에서 창경궁에의 임어기간이 가장 길었던 왕이었다. 정조의 창경궁 임어는 창덕궁 임어기간과 거의 대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궁궐 이용방식이 경모궁을 이진하는 과정에서 궁묘의 입지 선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왕이 임어하는 궁궐 가까이 사우를 조성한 결과 정조대의 경모궁 행행 횟수도 다른 도성 내 행행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재위기간 24년간 정조의 경모궁 거동 횟수가 285회에 이르렀다는 것은 정조연간의 종묘 행행이 65회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왕의 사친을 모신 궁묘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景慕宮儀軌』에 기록된 제사의식에 따른 경모궁 의례는 제대로 된 행장을 갖추고 동화문을 출발하여 종로와 종묘 앞길을 거쳐 경모궁에 이르는 땀자 형의 경로로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는 동화문 북쪽에 따로 월근문(月勤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궁궐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²³⁾ 궁묘가 가진 거리상의 이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빈번한 경모궁 행행을 통해 그것의 장소적 중요성이 한양 도성의 도시 공간 속에서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정조대 이후의 왕대별 행행횟수에서도 경모궁이 도성 내 궁묘 행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경모궁의 도시적 위상이 조선 후기 내내 꾸준히 유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북부 양덕방에 조성된 경우궁은 창덕궁의 담장을 마주할 정도의 가까운 위치에 조성되었는데,²⁴⁾ 정조의 경

23) 正祖 8卷, 3年(1779) 10月 21日(辛未) 1번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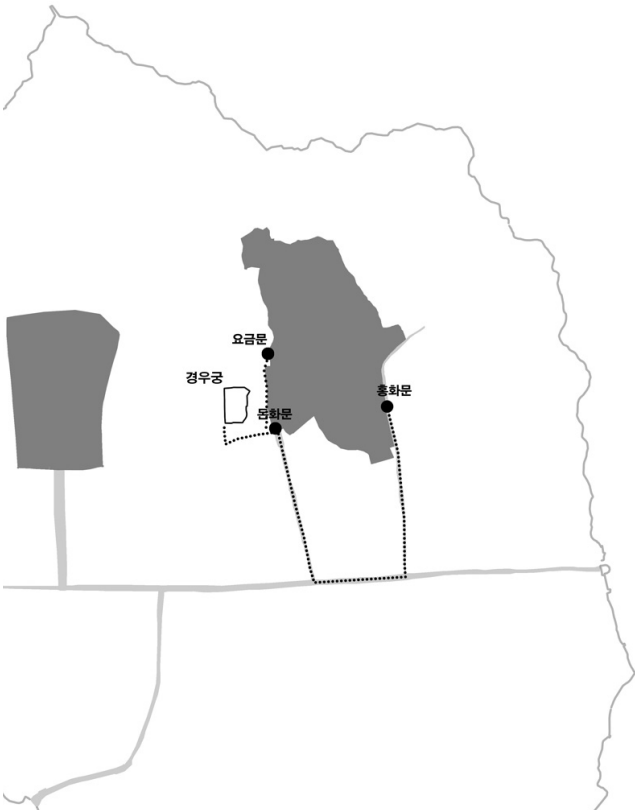


Fig.6 Flow of king Sunjo's parade from Changduk-gung to Kyeongwoo-gung

모궁 행행과 마찬가지로 순조대에는 경우궁 행행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재위기간의 대부분을 창덕궁에서 보냈던 순조는 궁묘의 구역이 완성된 이후, 창덕궁 부근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을 경우궁 행행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전배례(展拜禮)를 행하기 위한 거동에 창덕궁 서북문인 요금문(曜金門)을 자주 이용하였다.²⁴⁾ 정문인 돈화문을 대신하여 요금문을 경유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정조가 경모궁 행행에 월근문을 사용하였던 전례를 따른 것이기도 했다. 대로가 아닌 기존 도로의 폭을 고려하여 소여(小輿)를 이용한 간소화된 예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백성에게 행렬의 장대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왕이 언제든지 빠르게 생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왕이 경우궁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도시 공간 속에서 강하게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다만, 경모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궁묘의 영건 직후 치러진 입묘봉안제(入廟奉安祭)에서는

24) 경우궁이 자리잡은 곳은 원래 용호영이 위치하고 있던 곳으로 용호영 조성 당시의 기록인 『일성록(日省錄)』 정조원년 정유(1777) 9월 14일(병자) 기사에 의하면, 정조원년(1777) 창덕궁으로 환어한 이후 신하들이 용호영이 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문제삼자, 당시 궁장(宮牆)과 잇닿아 마주하는 곳에 위치해 있던 홍지해(洪趾海)의 집에 용호영을 옮겨 설치도록 결정하였다고 전한다.

25) 純祖 28卷, 26年(1826) 5月 25日(丙午) 1번째 기사

창경궁 홍화문을 출발하여 종묘 앞길을 포함한 종로를 지나 경우궁에 이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²⁶⁾ 도성 대로를 활용, 왕권의 상징성을 도시 공간 속에 보여주고자 한 왕의 행행이 가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경모궁과 경우궁의 경우와 같이 조선후기 도성 안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궁묘 행행이 창덕궁을 기점으로 하여 이루어지던 가운데, 영조가 경희궁에서 임어하던 기간에 나타난 육상궁 행행 동선에는 궁궐 활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도시공간의 변화상이 반영되어 있다.

육상궁이 처음 조성된 영조 재위 초기, 왕의 임어 궁궐을 창덕궁이었다. 따라서 경복궁 서측에 자리 잡은 육상궁의 입지는 왕의 행행에 있어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 영조가 숙빈묘를 육상궁으로 올리는 추송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영조 20년(1744)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재위 초반 육상궁으로의 행행은 당시 왕이 임어하고 있던 창덕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영조의 재위기간 중 이루어진 육상궁 행행의 전체 횟수를 고려하면 그리 많지 않은 횟수이다. 대신에 영조 36년(1760)부터 약 15년에 걸쳐 경희궁에 머무르면서 이루어진 육상궁 행행은 영조의 전체 재위기간 중 있었던 행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²⁷⁾ 이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드러난 세자(사도세자)와의 관계에 바탕을 둔 정치적인 이상으로 경희궁이 가지고 있던 육상궁 행행의 지리적 이점 역시 영조가 경희궁 이어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사친 추송을 통해 자신의 왕통을 증명해야 했던 영조에게 있어 육상궁의 도시 공간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이곳으로의 잦은 행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창덕궁에서 경희궁으로 육상궁 행행동선의 기점이 바뀜에 따라 왕의 궁묘행행의 경로는 창덕궁 돈화문을 거쳐 정선방로(貞善坊路), 과자교(把子橋), 종루(鐘閣), 혜정교(惠政橋), 삼간정동(三間井洞), 육조 앞길(六曹前路), 경복궁(景福宮址), 창의궁로(彰義宮路), 통의방로(義通坊路) 혹은 순화방로(順化坊路)를 거쳐 육상궁에 이르는 방식에서 경희궁 홍화문에서 출발하여 비변사(備邊司)

26) 순조 25년(1825) 치러진 경우궁 입묘봉안제에 대한 기록은 『현목수빈입묘도감의례(顯穆綏嬪入廟都監儀軌)』에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신어(神輿)의 행렬을 그린 채색반차도가 실려 있다. 신주는 혼궁(魂宮)이 있던 창경궁에서 출발, 명정문(明政門)과 홍화문(弘化門)을 지나 경우궁 외신문(外神門)에 도착하며, 이때 행렬의 이동경로에는 종묘 앞길, 즉 종로 대로가 포함되었다.

27) 이때의 육상궁 행행은 왕조실록의 기록을 기준으로 약 190회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영조 재위 52년간 동안 있었던 전체 행행횟수인 247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송인호, 조은주, 왕실사묘 육상궁의 20세기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권 10호, 2011)

써 창덕궁 중심의 도심에서 경희궁과 경복궁을 중심으로 하는 도성의 서측까지 도시 공간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궁묘 행행이라는 지속적인 도시적 행위를 통해 도심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 경복궁 중건 이후 도시공간의 변화와 궁묘 행행

4-1. 경복궁 중건이후 한성부 도시공간의 변화

영조 재위 후반 경희궁에 임어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임진왜란 이후 도심부 공간은 대부분 창덕궁을 중심으로 한 도성의 동쪽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전반에 걸쳐 강하게 유지되어 온 창덕궁 중심의 도시 공간 인식 체계가 19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란으로 소실되어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던 경복궁이 고종 2년(1865) 대왕대비의 명으로 시작된 중건 공역을 통해 그것의 물리적 실체를 회복함에 따라, 도성의 도시공간은 경복궁을 중심에 둔 조선 건국 초기의 모습으로 되돌려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도성 서쪽을 도심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도시 공간 체계의 변화에는 경복궁 중건이 결정되기 이전인 고종 1년(1864) 국가 기구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선후기 국가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다시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 강화시킨 것이 한 몫 했다. 창덕궁 및 돈화문 앞 도로를 중심으로 도성 동쪽에 집중되어있던 정치적 공간이 다시 경복궁과 육조거리를 중심으로 환원되면서 도성 서쪽에 대한 공간적 집중도가 이전 시대보다 강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경복궁이 회복된 직후에 바로 도성민의 도성 안 공간 인식 속에서 도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2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창덕궁을 도성의 중심으로 삼았던 도시·공간적 관성은 창덕궁과 그 주변 지역의 위상이 여전히 도시공간 속에서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그 결과 한동안 도성 안의 공간체계는 경복궁과 창덕궁을 중심으로 동-서로 양분되는 균형 상태를 일정기간 유지하다가 왕의 경복궁 임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시기에 이르러서야 경복궁이 있는 도성 서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형태가 되었다.

경복궁 중건 이후에도 일부 전각의 화재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이어와 환어를 반복하던 고종은 고종 22년(1885) 경복궁으로 환어한 이후, 고종 31년(1894)까지 약 9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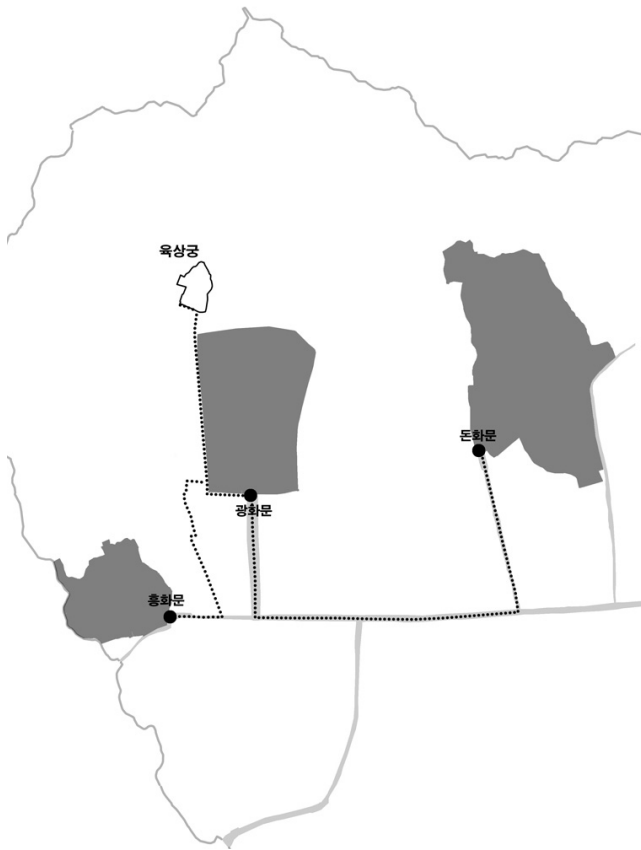


Fig.7 Flow of king Yeongjo's parade from Changduk-gung to Yooksang-gung

앞길, 야주현(夜晝峴), 내수사(內需司) 앞길, 송첨교(松簷橋), 적선방(積善坊), 창의궁로(彰義宮路), 순화방로(順化坊路)를 거쳐 육상궁에 이르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²⁸⁾ 창덕궁 돈화문에서 출발하던 기존의 행행 동선에 비해 경로의 길이가 상당부분 단축된 가운데, 돈화문에서 종로를 잇는 도로와 종로에서 광화문을 잇는 도로가 행행의 경로에서 사라지는 대신 경희궁 앞까지 확장된 종로 대로의 일부가 경로에 포함되어졌으며, 여기에는 국왕이 임어하는 궁궐의 달라짐에 따라 창덕궁 앞에서 경희궁 앞으로 옮겨진 비변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리하면, 조선후기 창덕궁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궁묘행행 동선에 포함되어 있는 돈화문 앞 도로, 종묘 앞 도로(종로), 그리고 홍화문 앞 도로는 비변사와 시전, 그리고 이현 시장의 발달과 함께 조선 후기 창덕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도심 공간을 잘 보여주는 요소가 된다. 또한 영조의 경희궁 임어에서 나타나는 육상궁 행행동선의 변화는 비변사의 위치 변화와 함께 돈화문 앞 도로와 홍화문 앞 도로 대신 광화문 앞 육조거리와 홍화문 앞까지 확장된 종로를 경로에 포함시킴으로

28) 이왕무, 영조의 사친궁·원 조성과 행행, 장서각15, 2006, 114쪽



Fig.8 Location of Gungmyo after the reconstruction Kyeongbok-gung, based on the map in 1912(①大嬪宮, ②毓祥宮, ③儲慶宮, ④景慕宮, ⑤延祐宮, ⑥宣喜宮, ⑦景祐宮)

창덕궁으로의 이동 없이 경복궁에 머물렀다. 이는 고종의 재위기간 중 경복궁에 임어했던 가장 긴 시간으로, 왕의 일상 공간이 경복궁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도성 안 궁묘 행행의 기점도 창덕궁보다는 경복궁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횡수가 늘어났다. 특히 이 시기에 이권이 결정된 경우궁의 경우,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육상궁 등과 함께 경복궁 서측을 중심으로 궁묘 시설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때의 행행동선 변화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구축된 도심부에 대한 공간 인식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4-2. 경복궁 이어에 따른 궁묘 행행의 변화

고종 22년(1885) 경우궁의 이권이 결정되었을 때, 경복궁 서측의 북부 순화방을 새로운 궁지로 삼은 데에는 고종이 임어하고 있던 경복궁과의 거리적 이점, 그리고 궁궐 주변 시설물이 가지는 도시 공간 속에서의 역학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이곳은 육상궁, 연호궁, 선회궁 등 여타 궁묘 시설로의 행행동선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종 재위 초기에 시도되었던 의례절차의 간소화를 실행에 옮기는데²⁹⁾ 부합하는 위치이기도 했다.

29) 고종 7년(1870) 시도되었던 각궁 합사 계획은 단순히 궁묘 시설들을 한 곳에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제사횟수의 축소, 각 궁 결수

이에 따라 경우궁의 이권 이후 나타난 행행동선의 변화는 경복궁 주변에 새롭게 조성되어가는 간선도로의 발달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행행동선의 변화가 도시공간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매개체가 된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이권 이전의 경우궁 행행동선이 돈화문 앞 도로, 종로, 홍화문 앞 도로로 이루어져 있어 조선후기 창덕궁을 기점으로 이루어졌던 조선후기 궁묘 행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권 이후 변화된 경우궁 행행동선은 광화문 앞 육조거리와 경복궁 서측에 맞닿은 통의동 길을 포함하는 새로운 노선으로서 영조시대에 육상궁 행행에서 나타났던 경희궁 기점의 행행 동선과 유사한 모습이다(Fig.9). 이것은 창덕궁 주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도심 공간에서 벗어나 이권 이후 경복궁 서측 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이전 시대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도시의 서쪽지역에 대한 도시적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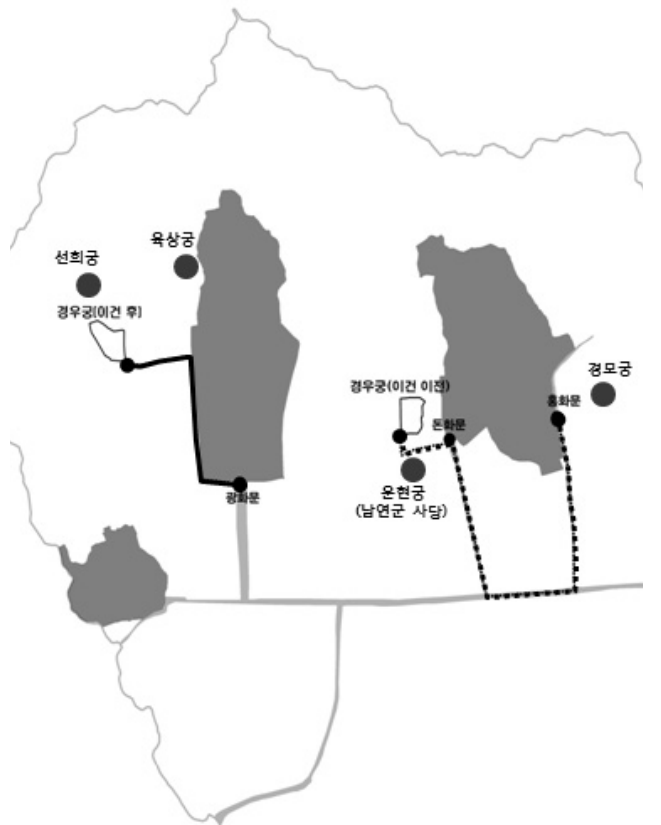


Fig.9 Changes of flow of king's parade from the palace to Kyeongwoo-gung(a solid line: before moving, a broken line : after moving)

정리 등의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례절차의 간소화 및 시설의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송인호, 조은주, 경우궁 행행의 변화와 19세기 한성부 도시구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권 8호, 2012)

한편 고종연간의 시대적 상황은 경우궁 행행의 변화가 단순히 궁묘의 입지변화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 시설물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조선후기 궁묘시설의 건립 증가로 왕이 의례를 치러야 할 사친의 숫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했던 궁묘 행행은 한 번에 여러 시설을 순차적으로 도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형되었는데, 이때 하나의 동선으로 묶이는 궁묘들은 각각이 향사의 대상과 위치는 다르지만 궁궐을 중심으로 하여 비슷한 입지적 조건을 가진 것들끼리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경우궁의 경우와 같이 궁묘의 이진으로 야기된 행행동선의 변화에는 입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주변 시설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이진 이전의 경우궁이 창덕궁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경모궁, 운현궁(남연군 사당)과 함께 행행이 이루어졌다면, 경복궁 서쪽으로의 이진 이후에는 육상궁과 선회궁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궁묘 행행방식의 변화가 경복궁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진 도시 공간의 활용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고종이 창덕궁과 경복궁에 머물렀던 기간은 총 재위기간 44년 중에서 대한제국 선포 이후 덕수궁에 머물렀던 13년을 제외한 31년으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도성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행행의 횟수는 다시 경복궁으로 이어한 1885년을 전후하여 구분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Tab.4>. 이 표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경복궁 이어 이후에 이전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운현궁으로의 행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대부분의 행행이 도성 서쪽에 위치한 궁묘 시설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Tab.4 Number of King Gojong's parade inside of the city wall

	total	~1885	1885~1894
Years of the royal presence	31	22	9
宗廟	64	38	26
社稷	2	2	0
毓祥宮	32	24	8
儲慶宮	21	14	7
景慕宮	62	41	21
延祐宮	5(25)	5(17)	(8)
宣喜宮	6(25)	5(18)	(7)
景祐宮	27	20	7
雲峴宮	26	26	0

* () is the number of king's parade after enshrining together
 ** reference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행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종묘와 경모궁으로의 행행이지만, 이들이 국가의 사전체계 속에 포함된 의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³⁰⁾ 궁궐의 중건과 왕의 궁궐 이용방식의 변화로 야기된 도시 공간 체계의 변화가 도성 내 행행의 추세변화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18, 19세기 한양도성 안에 위치한 궁묘의 입지와 궁궐과 궁묘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왕의 행행동선을 통해 궁묘가 도시 속에서 가지는 위상 및 도심부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소실되면서 한양 도성의 도심은 중건된 창덕궁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어졌다. 육조거리, 종로, 남대문로, 돈화문로가 중심을 이루던 기존의 간선도로 체계에 홍화문 앞 도로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육조거리를 대신하여 비변사가 위치한 돈화문 앞 도로가 정치적 중심 공간으로 부각되었다.

조선후기 왕의 임어지가 창덕궁으로 대부분 고정되어 있던 가운데 사친 존숭의 목적으로 활발하게 조성된 궁묘의 입지는 각 시설이 가진 정치적 목적성에 따라 왕이 임어하고 있던 궁궐과 인접한 위치에 입지하게 되었으며, 왕대별로 중요시 여기는 궁묘에 따라 행행횟수도 다르게 나타났다. 정조의 경모궁 행행과 순조의 경우궁 행행은 창덕궁을 기점으로 하는 둔 궁묘 행행의 대표적 예이며, 각 궁묘가 가진 입지적 특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선을 단축하고 행행의 예법도 간소화되었다. 창덕궁과 궁묘간의 행행동선은 돈화문 앞 도로와 종로, 홍화문 앞 도로 등을 중심으로 도심부 공간에 대한 인식 체계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정조와 순조보다 이전시기에 있었던 영조 재위기 후반의 경희궁 임어는 경희궁 기점의 새로운 행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의 육상궁 행행에는 광화문 앞 육조거리가 돈화문 앞 도로와 홍화문 앞 도로를 대신하여 경로에 포함되어져 창덕궁을 중심으로 도성의 동쪽에 집중되어 있던 도심부 공간에 대한 인식이 도성의 서쪽까지 확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고종 2년(1865) 시작된 경복궁 중건 공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성의 중심은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30) 종묘는 조선초기부터 국가의 사전 체계 속에서 대사(大祀)에 속해 있던 가장 중요한 의례대상이었고, 경모궁은 정조대에 국가사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중사(中祀)로 편입되어졌다.

18 논문

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고종 22년(1885) 경우궁의 이 건 과정에서 나타나는 궁묘 행행동선 변화에는 다시 한 양 도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경복궁과의 거리적 이점, 그리고 궁궐 주변 시설물이 가지는 도시 공간 속에서의 역학관계가 반영되어 임진왜란 이후 내내 도성의 동쪽에 치우쳐 유지되어 온 도심부에 대한 인식 체계가 도성의 서쪽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References

1. The History of Seoul Metropolitan(<http://seoul600.seoul.go.kr>)
2. the Seou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Geographical dictionary of Seoul』, 2009
3. the Seou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the History of Seoul』, 1999
4. Seoul Museum of History, 『都城大地圖』, 2002
5.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ncyclopedia of Korean national culture』
6.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tandard dictionary of Korean Language』
7. Ko, Donghwan, 『Urban History of Seoul in the Joseon Dynasty』, Tahaksa, 2007
8. Kim, Jiyong, (A) Study on the parades of the King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Dep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9. Kim, Ji Young, 「The Royal Processions of the Kings, and the paths that were taken,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No.30, 2008
10. Lee Wang Moo, 「A Study on the Kings Parade of King Sunjo's(純祖) Royal wedding ceremony in 1802」, Jangseogak, No.14, 2005
11. Lee, Wang Moo, 「A Study on the Kings Parade inside capital city in Late Chosun Dynasty」, The Journal of Chosun Dynasty History, Vol.43, 2007
12. Lee, Wang Moo, 「A Study on the King Youngjo's Parade in royal tomb and ancestral shrine」, Jangseogak, No.15, 2006
13. Jung, Kyung Hee, 「The Practice of Establishing Special Sharines(宮) and Low-level Mausoleums(園), and Changes made to that practice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No.23, 2004
14. Lee Wang Moo, 「A Study on the Kings Parade of King Sunjo's
15. Cho, Jae Mo, Shim, Woo Gab, 「The Establishments of Royal Shrines and their Influences under the Reign of King Youngjo and Jungjo」,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18, No.7, 2002
16. Song, Inho, Cho, Eunjoo, 「Urban Topology of Eui-Palace in Joseon Dynasty focused on King Young-jo's Wedding Procession」,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27, No. 5, 2011
17. Song, In Ho, Cho, Eun Joo, 「A Study on Transformation of Yuksang-gurg as a Royal Shrines in 20th Century」,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27, No.10, 2011
18. Song, Inho, Cho, Eunjoo, 「Changes of the Royal Procession to Gyeongwoo-gung and Spatial Structure of Seoul during the 19th Century」,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28, No.8, 2012
19. Cho, Eun Joo, 「The Transformation of 'Gungmyo' and 'Gungsil' in the Hanyang city wall from 1863 to 1936」, Dep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Seoul, 2012

접수(2012. 8. 14)

수정(1차: 2012. 12. 24)

게재확정(2012. 12. 26)